<화학산업 경쟁력을 배양하자!>

“ MTBE 환경오염 강건너 불 ”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MTBE 사용규제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식수용 우물에서 MTBE가 검출돼 인체 유해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는 2003년부터 MTBE 사용을 전면금지하기로 결정했고, EPA도 사용금지법안을 확정했다.

MTBE의 유해성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의 주유소 인근 식수용 우물에서 MTBE가 검출된 이후인데, MTBE가 함유된 휘발유가 주유소 저장탱크에서 새어나와 인근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출 휘발유도 문제이거니와 유출된 휘발유에 함유된 MTBE가 더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MTBE 자체는 휘발유의 첨가제로 사용돼 옥탄가를 높여줌으로써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화학물질이나 인체에 유입됐을 때에는 암이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MTBE의 유해성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 유해하다고 결론내려진 물질이 우리나라에서는 유해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휘발유 유출사고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 MTBE가 주변토양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없어서인지 알 수 없으나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보건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의 환경 당국자들이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조기업들을 상대로 별의별 압력과 간섭을 일삼으면서 유독 MTBE의 유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정유기업들이 MTBE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휘발유의 산소함량을 높여야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유소의 주변토양이 유독한 기름으로 심각하게 오염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휘발유에 MTBE가 첨가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유추해보면 주유소 주변토양이 석유류로 오염돼 있고, 우리나라의 주유소 주변토양 및 식수용 우물들도 MTBE를 함유해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립환경연구원이 1999년 한해동안 전국의 석유·유독물질 제조 및 저장시설 8637개소의 주변토양에 대한 벤젠·톨루엔·에틸벤젠·자일렌(BTEX)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조사대상의 1.6%인 137개소의 주변토양이 토양오염확인기준 32ppm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토양오염대책기준인 200ppm 이상을 초과한 곳도 43개소에 달했다.

국립환경연구원은 용인군 Y주유소는 주변토양에서 BTEX가 무려 7288.1ppm 검출돼 법적 처벌기준인 토양오염우려기준(80ppm 이상) 보다 91.1배 높았고, 확인기준에 비해서는 227.8배 높았다고 밝혔다. 양양군 H주유소 인근토양은 BTEX가 4500ppm으로 토양오염우려 기준치를 56.3배 초과했고, 오산 S주유소(1599.5ppm), 진안군 W주유소(1559ppm), 부산시 강서구 S주유소(1152ppm), 구리시 G주유소(572ppm)도 마찬가지이다.

토양오염 확인기준은 토양오염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기준치, 우려기준은 방치하면 심각한 오염이 우려되는 수준, 대책기준은 즉각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기준치를 각각 뜻한다.

그런데도 환경부와 국립환경연구원은 일부 주유소의 토양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BTEX 검출치를 32ppm 이하로 낮추도록 시설개선 등 긴급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끝냈다.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힘(?)으로 주유소를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지자체 입장에서 주유소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이고, 함부로 대할 수 없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주유소 및 유독물질 취급소에 시설개선명령을 내리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조사대상 유독물질을 확대하고 MTBE도 포함시켜야 하며, 검출된 유독물질이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나 EPA가 할 일이 없어서 MTBE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아님은 강조할 필요가 없다.

정유4사는 1990년대 중반부터 S-오일(쌍용정유)을 시발로 옥탄가 논쟁을 벌여왔다. 바로 MTBE 첨가경쟁인 것이다. 당시에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MTBE를 첨가하는 것이 당연했을 것이다.

하지만, 세월이 지났고 MTBE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다. 정유4사도 브랜드 싸움, 보너스카드 경쟁에 휘발유 청정제 싸움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MTBE의 유해성에 대해 심각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환경부의 환경정책이 국민을 위해 수립 ·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화학저널 2000/7/17>